

2028 서울대 정시, 백분위 반영 내신 확대에도 ‘수능점수’ 승부처

서울대, 수능60%·내신40% 조정
내신 1.2·수능 1.6등급 경쟁 치열
동점 땀 수능 백분위 점수가 ‘열쇠’

서울대가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수능 반영 방식을 표준점수 중심에서 등급·백분위 점수로 바꾸고, 단계별 비율도 수능 60%·내신 40%로 조정한다.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전 과목 1등급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커, 2단계에서는 내신 최상위권(약 1.2등급 이내) 학생들 간 접전이 예상된다. 다만 동점이 잦아질수록 실제 합격선은 수능 백분위 격차가 좌우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종로학원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의 1단계 전형 방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수능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등급점수를 기준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 표준점수 대신 등급을 적용함에 따라 수능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2단계 전형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현재는 수능 성적이 80%, 학교 내신이 20% 반영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비중이 60%로 줄고 내신 비중이 40%로 높아진다. 여기에 수능 반영 지표도 표준점수가 아닌 백분위 점수로 전환된다. 상위권 학생들 간에는 백분위 점수의 미세한 차이가 합격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대 2028학년도 정시 수능반영 방식 변화〉

	현재	변경(2028학년도~)
1단계 선발방식	표준점수 기준 2배수	등급점수 기준 3배수
2단계 수능점수 반영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2단계 반영 비율	수능 80% + 내신 20%	수능 60% + 내신 40%
경쟁 구도	수능 중심	내신 1.2등급 이내 + 수능 백분위 격차
검정고시생 영향	지역균형 제한 존재, 내신 반영 제한적	모든 정시 전형 지원 가능, 내신 미반영 변수

/종로학원

내신의 영향력 확대는 ‘5등급제’ 도입과 맞물려 있다. 현재 9등급제 대신 5등급제가 적용되면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내신 1등급 동점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서울대 정시 2단계에서는 사실상 내신 1.2등급 이내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신이 최상위권 이더라도 동점이 많다면 결국 수능 백분위 점수에서 합격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1단계 3배수 통과를 위해서는 국어·수학·영어·탐구·한국사 등 5개 영역 평균 1.6등급 이내 성적이 필요할 것으로 종로학원은 추정했다. 서울대 전체 선발인원 3556명의 3배수는 약 1만 668명이며, 의약학계열 선발 인원 6498명을 포함하면 약 1만 7166명이 1단계 선발 규모가 된다. 현재 수능 5개 영역 평균 1.6등급 이내 학생 수가 약 1만 8977명 수준으로 추계돼, 상위권 수험생 상당수가 1단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28학년도부터 정시 지역균형전형이 폐지되면서 검정고시생도 모든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내신 반영 비율이 40%로 확대되면서, 내신이 없는 검정고시생의 평가 방식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대가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했음에도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내신보다 여전히 수능 점수가 실질적인 변별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내신 동점자가 속출하는 구조 속에서는 결국 수능 백분위 고득점자가 최종 합격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수능 약화’라는 표현이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5등급제 전환과 등급·백분위 반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격선은 여전히 수능 백분위 미세 격차가 좌우할 것”이라며 “내신 최상위권 방어와 전 영역 고른 수능 고득점이라는 이중 관리가 2028대입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시험문제 학원에 팔아넘긴 교사 142명 징계

서울시교육청, 징계부가금 부과
공립 54명, 사립 88명, 18명 중징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 등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 대상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이다. 공립교원 가운데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받았다. 사립교원 중에서는 14명이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74명이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를 통보받았다.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법인이 징계 후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기본 전제로 파생된 비위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거나, 교원들이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나눠 받은 행위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와 함께 총 41억원 규모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분을 의결

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교원의 영리업무 및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을 제안하고,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과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 강화를 통해 재발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정근식 교육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점검

72교·주요 산업체 대상 특별점검
현장실습 질 높이고, 안전망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3일 성동구(썬신도리코)를 방문해 ‘2025학년도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 사망 근절 원년’ 기조에 맞춰,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 중심의 실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신도리코 본사 실습장을 직접 둘러보며 경기기계공업고, 유한공고, 용산철도고, 영락의료고 학교 등에서 파견된 실습생 8명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이사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와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72교와 주요 산

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안전교육 실시 여부, 표준협약서 준수, 실습일지 작성 및 위험 징후 즉각 조치 여부, 안전용품 지급 현황, 기업현장교사 지도 실적 등이다.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취약한 부분은 개선 권고와 후속 관리까지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참여 ▲취업 연계 확대 ▲기업의 산업안전 관리 강화 ▲교육청-학교-산업체 간 협력 구조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실습할 때 진정한 직무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며 “교육청은 산업체와 협력해 권익을 보장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10월 한 달간 가을 축제 ‘릴레이’

가구박람회, 독서대전 등 문화 향연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시민들을 위해 고양시가 10월 한 달간 풍성한 가을 문화 향연을 이어간다. 전시·공연·체험이 어우러진 축제들이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며 시민들에게 계절의 정취와 여유를 선물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는 수도권 대표 리빙 전시회인 ‘고양 가구박람회’가 열린다. ‘가을 꽃향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98개 가구업체와 144개 리빙관이 참여한다. 현장 구매와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18일에는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2025 고양독서대전’이 개최된다. ‘오늘은, 책 모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독서축제는 7개 영역, 3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책과 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열린 코스모스 축제.

25일에는 일산문화광장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2025 동물교감 치유 문화제’가 펼쳐진다. 반려견 놀이터 관리자 시상식과 버스킹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5~26일에는 창릉천 강매석공공원 일원에서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가 열린다. 약 3만㎡ 규모의 코스모스 꽃밭이 가을 하늘 아래 장관을 이루며, 버스킹 공연과 노래자랑, 가족 단위 체험 부스, 농수산물 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시민들을 맞이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中 “정당한 권리·이익 수호 위해 美 추가관세에 단호한 상응 조치”

/사진 뉴시스

▲한국,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이사국 2028년까지 연임 성공

▲캄보디아 검찰, ‘韓대학생 고문·살해’ 중국인 3명 기소

▲멕시코, 열대성 폭풍이 부른 폭우와 산사태로 37명 사망

▲가자 휴전 정상회담 준비하던 카타르 외교관 3명, 교통사고로 사망

▲트럼프, ‘가자 정상회의’ 주재…유럽 정상들도 이집트행